

HEADLINE NEWS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종합환경평가제도」 실시 (오사카)

일본 오사카시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설 추진을 도모하고자, 최근 「건축물 종합환경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대규모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가 건축물의 종합적인 환경성능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개요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시는 건축물에 「종합설계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 제도의 5등급 중 3등급 이상을 허가요건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건축물의 종합적인 환경성능을 파악할 수 있고, 주택 구입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주도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축물 종합환경평가제도」는 연면적 5,0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종합설계제도」는 대지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신고대상이다.

※ **종합설계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공개 공지를 확보하고 시가지 환경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이나 높이의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허가제도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10/month/index.htm#month3)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녹슨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 ② 외곽환상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있어 'P(주민참여)'수법 도입과 문제 (동경)
- ③ 마을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 철거 자원 봉사자 제도」 시행 (오사카)
- ④ 15개 도시의 스마트 성장 비교 보고서 출간 (미국)

도시환경

- ⑤ 공원 경영에 「주민평가제도」 도입 (동경)

도시교통

- ⑥ “더욱 푸르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추진 (영국)
- ⑦ 중국의 BRT 도입과 확대 (베이징, 상하이, 군밍)

사회복지·문화

- ⑧ 아동복지 개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뉴저지주: 트렌턴시)
- ⑨ 아동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실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 ⑩ 청각장애인에게 ‘연기나는 알람장치’ 제공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행·재정

- ⑪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확충 (동경)
- ⑫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컨сь에르제(Concierge) 서비스 도입 증가 (동경)
- ⑬ 지역 소유 상업시설이 지역경제에 큰 기여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① 녹슨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市)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Pittsburgh)市가 문화의 중심지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市는 지난 20년간 ‘다운타운 문화지구(Downtown Cultural District)’를 조성하여 박물관, 미술관, 극장, 공연장 등을 확충하였고, 깨끗하고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활력있는 거리를 조성했다. 市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철강산업의 쇠퇴 이후 인적이 드물었던 다운타운 거리에 다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또한, 市는 ‘문화’라는 상표(Brand)를 이용해 젊은층들을 도시로 끌어들이므로써, 그동안 市가 겪어왔던 심각한 고급인력 유출(Brain Drain) 문제의 해결도 기대하고 있다. (www.csmonitor.com/2004/1022/p11s02-alar.html?s=hns)

② 외곽환상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있어 ‘PI(주민참여)’ 수법 도입과 문제 (동경)

계획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채택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Public Involvement(PI=주민참여)’ 수법이 일본 東京都의 외곽환상도로 건설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에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34년간 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외곽 환상도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都는 ‘PI’ 수법을 도입, 2002년 6월 ‘PI 외환연선험의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都가 협의회와는 별도로 「외곽환상도로에 관한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건설안에 대한 행정과 주민의 대립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PI’ 수법은 공통인식을 도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주고 의논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상단계의 계획안도 주민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경공업대의 屋井鐵雄 교수는 “PI는 사업의 시비를 판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주민간 의견차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일본경제신문, 2004. 10. 1)

③ 마을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 철거 자원봉사자 제도」 시행 (오사카)

도로상에 넘치는 벽보, 입간판 등의 불법 간이광고물은 마을의 미관을 손상시키고 통행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市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도에 「노상 불법 간이광고물 철거 자원봉사자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183개 단체, 약 2,600명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철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활동을 시작한 2002년 10월부터 2004년 7월 말까지 약 374,000건의 불법 광고물이 철거되었다. 市는 최근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해 추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10/month/index.htm#month3)

④ 15개 도시의 스마트 성장 비교 보고서 출간 (미국)

미국 워싱턴州 시애틀市에 있는 비영리 환경운동 그룹인 ‘Northwest Environmental Watch’는 미국 15개 도시의 스마트 성장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대상도시들 중 오리건州의 포틀랜드市 성장관리정책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도시확산(urban sprawl) 억제와 농지보전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농지나 공지에서 주거용지로 전용된 면적을 살펴보면, 포틀랜드 대도시권의 경우 100명당 10에이커의 토지가 전용된 것에 반해, 노스캐롤라이나州 샬럿(Charlotte)市의 경우는 100명당 49에이커가 전용되어 포틀랜드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와 각종 지도는 웹사이트에서 PDF로 이용 가능하다.

(www.northwestwatch.org/scorecard/Portland04.asp)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공원 경영에 「주민평가제도」 도입 (동경)

일본 東京都는 공원 경영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都는 공원내 시설의 이용법이나 안전성, 청결·미화상태, 이벤트 만족도 등을 각종 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 개선점이나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매력있는 공원 만들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都는 이 제도를 올해 안에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공원평가기준은 지역 활동으로의 공헌,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 비영리 조직(NPO)이나 기업과의 연계 등이고, 3년에 1번씩 공개심의회를 통해 전체 경영방침을 재수정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4월부터 공원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都는 민간활력을 촉진하고 공원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감시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일본경제신문, 2004. 11. 2)

6] “더욱 푸르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추진 (영국)

영국 교육부와 교통부는 “더욱 푸르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학교 가는 길 (Greener, Safer, Healthier Routes to Schools)”을 추진하기 위해 ‘통학통행안전 (School Transport Bill)’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교통혼잡과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통학을 위해 영국 전체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학교에 자전거 정차대를 설치한다. 둘째, 학생들이 합의된 장소에 모이거나 통학 도중 합류하여, 자원 인솔자를 따라 학교까지 그룹을 지어 통학하는 ‘걷는 버스(walking bus)’를 운영한다. 셋째, 학부모들이 일정 장소까지 학생들을 차로 바래다 준 후, 학생들이 끼리 학교에 가도록 하는 ‘park & stride’를 실시한다. 넷째, CCTV 설치, 잘 훈련된 운전기사 채용, 학교 행사시 추가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등 더욱 질 높은 통학버스 운영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학교마다 수업시차제 (staggered starting time)를 적용해 특정 시간대에 도로상의 통행량을 줄이는 전략을 시행한다. (www.dft.gov.uk/pns/displaypn.cgi?pn_id=2004_0130)

7 중국의 BRT 도입과 확대 (베이징, 상하이, 군밍)

중국본토 도로계획과 군밍,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내 도시계획에 BRT(Bus Rapid Transit; 급행버스시스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베이징市는 2005년 초에 버스 간선축을 운영할 예정인데, 금번 BRT 네트워크 개발계획에는 쿠리티바 주 간선도로의 독립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주 교차로에서의 입체버스도로 건설 등 300km에 달하는 BRT 도로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BRT 운영을 위해 18.3m의 굴절버스가 도입되고, 버스 우선처리 및 기타 ITS 기술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2008년 올림픽 전까지 대규모의 BRT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상하이市는 Shell Foundation, 세계자원협회(WRI)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하이 교통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중교통시스템 계획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기존에 운행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철도 및 경전철과 BRT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지속가능한 상하이 교통협력체계’는 상하이 교통시스템의 통합 및 탄력적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약 20km의 도로구간에 BRT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는 군밍市는 20km 구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중앙에 양방향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다. EMBARQ(교통 및 환경부문의 WRI센터)는 BRT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및 각 도시가 이러한 개발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기준 개발 등에 대한 초기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Bus Rapid Transit NewsLane Vol. 3, No. 2)

8 아동복지 개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뉴저지주: 트렌턴시)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시 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 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아동복지 개혁을 위해 지역사회의 24개 조직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협력체제는 과거의 아동복지체제와는 달리 작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강점을 가지며, 가까운 이웃에게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부 산하에 '예방 및 지역사회 협력 부서(Division of Prevention and Community Partnership)'를 신설하여,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기관 및 조직 등과 협력체제를 갖추었다.

(www.state.nj.us/humanservices/Press-2004/faith5-19release.htm)

9 아동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실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미국 유타주의 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 아동·가족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옴부즈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Office of Child Protection Ombudsman)를 제도화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 옴부즈맨 서비스는 아동·가족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토록 함으로써 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ww.ocpo.utah.gov.)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④ 청각장애인에게 ‘연기나는 알람장치’ 제공 (미네소타주: 세인트폴市)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市는 기존 알람장치의 경고음을 듣는 데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최근 250명의 장애인에게 ‘연기나는 알람장치’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州복지서비스부와 소방안전부가 함께 실시한 것으로, 총 21,200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 알람장치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것으로, 화재 발생시 경보음과 함께 연기가 발산된다. 또한 휴대가 가능해 이동이나 여행시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이 알람장치는 화재 발생시 경고음을 듣지 못해 미리 대피하기 힘들었던 청각장애인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dhs.state.mn.us/main/groups/publications/documents/pub/dhs_id_028922.hcsp)

④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확충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4년 말까지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각종 인허가 절차나 생활관련 정보를 단일한 창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都內 외국계 기업(합병기업 포함)은 2,500여개로 상당히 증가했지만, 반면에 철수하는 기업의 수도 적지 않다. 都는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처럼 우수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제도 대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都는 ‘동경도 정보제공 One-Stop 창구(가칭)’를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都가 담당하는 인허가나 각종 절차정보, 외국인 사원을 위한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R&D(연구개발) 기업에서 자주 문의하는 환경규제사항이나 외국어로 진찰가능한 병원안내 등이다. 제휴처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도 소개할 계획이다.

(일본경제신문, 2004. 10. 22)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컨세르제(Concierge) 서비스’ 도입 증가 (동경)

최근 일본 東京都에서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과 연계해 쇼핑객에게 점포를 안내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컨세르제(Concierge) 서비스’를 실시하는 상점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사시다이(武蔵野)市 키치쇼지(吉祥寺) 지구가 6월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신주쿠區 신라쿠사카(神樂坂), 시라가와區 나카니와(中延)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컨세르제 서비스’는 상점가의 매력과 편리성을 높이고, 이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를 잘 아는 NPO 회원이나 상점 관계자들이 오래된 명물가게나 특색있는 상점가, 상품 등을 쇼핑객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이나 시간대를 결정하여 안내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최근 검토되고 있다. 서비스 운영비는 자체 운영위원회가 부담하고, 지역의 NPO법인, 마찌즈꾸리 관광기구가 멤버의 모집이나 상담에 대한 연구를 맡는다. (일본경제신문, 2004. 10. 13)

지역 소유 상업시설이 지역경제에 큰 기여 (일리노이주: 시카고市)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市の 북쪽에 위치한 앤더슨빌(Andersonville)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소유의 상업시설(locally owned shops)들이 체인점보다 지역경제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달러를 지역소유상점에 소비할 경우 73달러가 시카고 지역경제에 남게 되는 반면, 체인점에서 소비할 경우 43달러만 지역경제에 남고 나머지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유상점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유는 그 지역 사업주에 의한 지역고유의 상품 구매와 서비스의 이용, 지역 내에서의 재투자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www.suntimes.com/output/news/cst-nws-mompop24.html)